

이순원씨

고백적 문체로 그린 '젊은 날의 초상'

《19세》 쓴 이순원씨

누구나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장통'을 앓게 마련이다.
그 나이에 걸맞게 성적 호기심을 갖게 되고,
정신적으로 방황을 한다. 소설가 이순원씨는 자신이
겪은 성장과정을 《19세》를 통해 진솔하게 고백한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야 아이들과 교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굽은 것은 길만이 아니다. 누구나 인생살이는 굽이지게 마련이다. 특히 사춘기에 걷는 길은 거칠다. 다양한 주제의 작품을 선보여 독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소설가 이순원씨(44)의 사춘기 역시 순탄치 않았다. 그는 지난해 여름 성장소설 《19세》(세계사)를 발표해 자신의 사춘기 성장과정을 가감 없이 보여줬다.

그가 20여년의 세월이 흐른 뒤 한 소년을 내세워 사춘기 시절을 솔직하게 고백한 이유는 요즘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였다. 이와 함께 어른들이 만든 도덕적 잣대로 아이들을 통제하려는 우리 사회의 어설픈 엄숙주의에 대한 질타도 중요한 창작 동기였다.

그는 아이들과 교감하기 위해 먼저 육체적 변화에 따른 '성장통'을 들려준다. 이를테면, 사타구니에서 췌미(수염)가 잔디 기어나오듯 하던 열네 살 때는 여자의 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홍콩가는 짓(자위행위)을 배우던 열다섯 살 때는 바짝 조이는 청바지를 입은 친구 누나를 그리며 화장실에 붙은 낙서를 떠올렸다. 열아홉 때는 술집 작부와 어울리며 어른의 선을 넘기도 한다.

"우리 때는 어른이 보던 책을 남몰래 읽는 정도였지만, 디지털 시대에 사는 요즘 아이들은 얼마든지 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오히려 어른이 아이들의 정보를 훑쳐보죠. <빨간 마후라>가 그것 아닙니까? 도구가 바뀌어도 성적 호기심은 바뀌지 않는 셈이죠."

그는 《19세》를 통해 요즘 아이들에게 성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누구나 사춘기 시절에는 성적 호기심에 따른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곧 성인이 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사춘기의 또다른 특징은 정신적 성숙을 위한 방황이다.

"사춘기 때는 누구나 혼자 있고 싶어합니다. 가족으로부터도 벗어나려고 하지요."

천재 소리를 듣는 형과 가족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년이 찾은 곳은 대관령이었다. 그곳에서 소년은 자신의 푸른 꿈을 찾았다.

"제가 자란 산골에서 일한다는 것은 곧 성인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경제력을 갖게 되면 어른의 세계로 입사(入社)한 것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학교를 그만두고 대관령으로 들어간 소년은 고랭지 배추농사를 지어 많은 돈을 벌었다. 소년은 마침내 성인이 된 기분을 느끼며 오토바이를 사고, 친구를 불러내 다방과 술집을 들락거렸다. 그러나 방황과 환희가 교차하는 순간, 소년의 가슴에는 급격한 성장에 따른 슬픔의 강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방황을 겪으면서 돈버는 일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 때 비로소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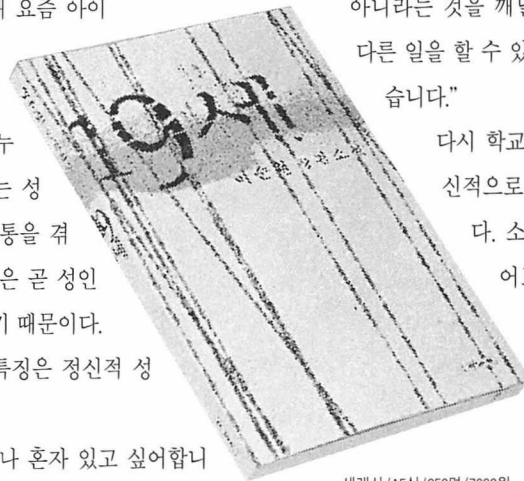
다시 학교로 돌아온 소년은 정신적으로 한층 성숙해져 있었다. 소년은 방황을 하면서 어느덧 성인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었던 것이다.

인생의 가장 가파른 굽이길을 돌아서는 소년에게 힘이

된 것은 책이었다. 소년이 대관령에서 내려올 무렵, 책들이 커다란 서가 하나를 가득 채우고도 남았다. '식탐'(識貪)은 방황의 기간을 단축시켰을 뿐 아니라 정신을 한층 성숙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19세》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는 굽이진 길을 걸어왔다. 그러나 그런 경험이 글을 쓰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 그의 작품이 독자들의 사랑을 받게 된 것도 성장과정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을 울림이 있는 아픔으로 승화시켰기 때문이다.

- 오원진 기자



세계사/A5신/250면/7000원